전법 일기

고입대입 백일 정진 통해 마음 변화를 이끌어내다

고입·대입 100일 정진이 8월 7일 입재식을 한 후 11월 12일 회향을 했다. 정진하기 전에 청소를 하며 수험생들이 마음의 쓰레기를 씻어내고 목적지까지 지혜롭게 운전해 가기를 발원하게 되었다.

이번 정진에는 노보살들과 젊은 보살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 노보살들은 젊은 보살들의 신발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돌려 놓아주는 세심함도 보였다.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젊은 보살은 '이 마음을 나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족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난청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께서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메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단톡방에 법회 포스팅을 부탁드렸다. 그것은 여건상 참가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은 어려우나 같이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신도는 이런 심부름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욱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강해서 가족 인연에 대한 벽이 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진하면서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서로에 대한 앙금이 녹아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공부에 뜻이 없다가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공부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셨던 신도도 있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정진을 통해서 '아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아들을 대할 때도 조바심이 없어지고 놓는 작업을 하며 행복합니다."

한 신도는 수험생이 둘인데 수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근본에서 나온 거다'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시험 잘 못 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면 예전에 같으면 '못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불안하게 했을 텐데 아이 입장에 서서 피드백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간호와 수험생 뒷바라지를 겸하셨던 신도도 계셨다. "가족들이 제 몫을 톡톡히 맡아주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크게 바라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고 빡빡하게 퍼즐처럼 끼워넣으려고 했으면 아마 튀어나갔을 텐데요. 내려놓는 마음, '주인공의 한자리에 넣자'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얘기하게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처럼 진실되며 발전된 정진 내용을 공유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모두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정진은 수능을 마친 후 수험생들과 조부모,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더욱 환하게 꽃이 필 것이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⑩ 시, 빛이 되는 산책

詩, 삶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

오늘은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창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저마다 다른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창의성이 서로 거리가 먼 것을 연결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틱낫한 스님의 문장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그대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는 이 종이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구름이 있다. 이 종이의 존재는 구름의 존재에 달려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도 종이에서 구름이 보이시나요?

'종이'와 '구름'이라는 서로 거리가 먼 사물들이, 그 사이에 '비'와 '나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힘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 쓰기'야말로 창의성을 키워주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시는 A와 B 사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를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징검다리는 거리가 너무 멀면 건널 수 없고, 또 너무 가까우면 시시해서 재미가 사라집니다. 어떤 돌을, 어떤 간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놓아가느냐가 바로 상상력이고 설득력입니다. 거기에서 지은이만의 고유한 사연과 스토리텔링이 드러납니다. 창의성뿐만 아니라 뜻밖에 치유의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학서 시는 '창의성의 꽃'
나와 세계를 하나로 연결
자기 성찰로 주인된 삶을

반면에 소설은 갈등과 대립,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게 끔 합니다. 평론은 작품에서 받은 감동의 이유를 찾아 제시하고, 수필은 시와 소설과 달리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형상화를 통해 에둘러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시는 창의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음악과 수학처럼 패턴의 과학입니다. A와 B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고유한 패턴이 생기고, 그동안 이름이 없어 호명되지 못했던 패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은 새로움과 색다름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변신합니다. 시와 음악과 수학이 과학이자 예술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는 삶을 예술로 만드는 한 방법입니다. 사물 A와 사물 B를 연결하듯, 나와 사물, 나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학원수업과 숙제에 치여 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길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로, 글로 쓰는 것은 삶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일입니다. 비록 시를 이야기했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음미할 때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삶은 빛이 되는 산책이 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불교 첫 인상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처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근한 소통창구다. 그곳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님과 법담을 나누며 불교의 가르침에 자연히 다가서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불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

최근 무종교인 지인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템플스테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인기의 비결이 궁금했단다. 그런데 결론은 "다신 안 가고 싶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스님께 진솔하고 따뜻한 지혜를 얻고 싶어 마음 깊숙이 쌓여 있던 고민을 어렵게 꺼냈는데, 예상과 달리 장난스럽고 무례한 답변이 돌아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불교가 싫어졌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당시 느꼈던 실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불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템플스테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진정성 있는 가르침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과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의 역할이다.

스님마다 개개인의 해석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개별적 차이가 불교 초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도법사 스님들이 초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선에서 불교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현대 사회와 대중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요구된다.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사찰 체험이 아니다. 불교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자, 억겁의 인연으로 만난 시작점일지 모른다. 방문자들이 불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